

문경 회룡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소 준공

윤대열기자 | 승인 2026.01.22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연간 1.3GWH 전력 생산
친환경 그린에너지 발전소



회룡저수지에 설치된 수상태양광발전소. 사진=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지사장 이병탁)가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경지사는 산북면 회룡리에 위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회룡저수지'에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 5월 착공했으며 총 사업비 약 18억원이 투입됐다.

회룡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소는 수면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을 통해 산림훼손과 난개발을 최소화한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올해 1월 상업운전을 시작하며 연간 1.3GWH의 전력을 생산해 4천여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친환경 그린에너지 발전소로 건립됐다.

이병탁 지사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환경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발전수익금 전액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에 재투자해 국가재정부담 경감 및 농업인 영농 편의 제공 등 농어촌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대열기자